

## 세•번•상•식

### 풋고추

빛이 푸르고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의 고추로 날것으로 된장 등에 찍어 먹는 생식용이나 찌개의 양념, 장아찌, 부각 등에 이용된다.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청고추(青苦椒)라고도 부른다. 풋고추가 익으면 흥고추(붉은 고추)가 된다. 연중 재배되며, 보통 꽃이 핀 뒤 보름 정도 지나면 풋고추를 수확할 수 있다.

고추는 매운맛을 내는 신미종(辛味種)과 맵지 않은 감미종(甘味種)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신미종을 풋고추나 건고추의 상태로 이용한다. 과거에는 고추를 주로 건고추로 이용하였으나, 신선 채소류의 소비 증가 경향과 더불어 생식용으로 쓰이는 풋고추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고추는 재배하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식용 상태가 다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에서는 피망을 포함한 풋고추 등의 수요가 많은 편이다.

하우스나 시설을 이용한 촉성, 반촉성 억제 재배작형에서 많이 재배된다. 좋은 풋고추는 저온기에 착과 및 비대가 좋아야 한다. 과실의 길이는 10cm 이상이고, 신맛이 적으며, 곧은 과실 형태를 가져야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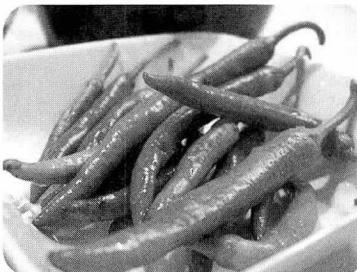
영양 성분은 100g당 철 0.7mg, 나트륨 2mg,

칼륨 270mg, 카로틴 2,000 $\mu$ g, 비타민B1 0.05mg, 비타민B2 0.13mg, 비타민C 22mg, 니아신 1.3mg 등이 함유되어 있다. 풋고추는 비타민C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타민A가 제일 많은데, 특히 볶으면 비타민 A가 더 많아져서 몸에 좋다.

풋고추에는 굴의 5배, 사과의 12배에 해당되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A와 B, 섬유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암작용까지 한다. 특히 (대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 예방 및 치료에도 좋고) 대장암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좋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삼복에 풋고추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 초복에는 1개, 중복에는 2개, 말복에는 3개를 먹어 몸에 기운을 북돋워주었다. 이것은 무더운 여름철 지치기 쉬운 몸에 비타민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그 외에도 풋고추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고추의 매운 맛은 캡사이신(capsaicin)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입안과 위를 자극해서 체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켜서 신경통치료에도 효과가 좋다. 또한 캡사이신이 체지방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풋고추를 많이 먹으면, 캡사이신 농도가 짙어져 인체에 자극을 주



게 되므로, 체지방과 허리가 얇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너무 매운 고추는 위장을 자극해서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설사를 일으키거나 간장 기능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본품은 꼭지가 있는 풋고추(약 97%)를 소량의 깐마늘과 함께 간장, 초산, 구연산 등으로 된 조미액에 절여 육질 내부까지 조미액이 완전히 침투, 숙성되어 녹갈색으로 변한 것이다.(육질 내부 소금함량 약 6.9%, 초산함량 약 0.3%)

**【세번정정이유】** 본품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1.90-9090호로 신고하였다.

관세청 고시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채소에 함유된 초산과 소금의 함량이 초산 0.5% 이상, 소금 12% 미만인 경우에만 제2001호에 분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품은 초산함량이 약 0.3%이므로 제2001호에 분류될 수 없다. 본품은 풋고추를 소량의 마늘과 함께 간장, 식초 등으로 된 조미액에 절여 육질 내부까지 조미액이 완전히 침투, 숙성되어 녹갈색으로 변한 것으로서 신선, 냉장한 고추 및 마늘과 비교시 색상, 맛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신선, 냉장한 고추 및 마늘 본래의 특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는 내용 및 관세율표 제2005호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 2005.99-9000호로 정정 분류하게 되었다.

## 탄소배출권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지상의 생태계가 변화하거나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안선의 위치가 달라지는 등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를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라 한다. 이러한 명칭은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관측되고 있는 온난화를 주로 지칭한다.

원인으로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온실기체로는 이산화탄소( $\text{CO}_2$ )가 대표적이며 산업화 발달과 함께 그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메탄 · 수증기 · 아산화질소 · 염화불화탄소(프레온) 등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알려져 있다.

지구 온난화결과로 지상의 각종 기체는 대기 중으로 더욱 확산 될 것이고 이러한 반복적인 진행은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여 평균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홍수나 기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지의 빙하가 녹아 19세기 이래 이미 30% 이상이 녹았고, UN에서는 알프스 스키장을 빙하가 사라져 장래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스위스에서는 해발 800m에서 타던 스키장이 지금은 1,300m 까지 올라가야만 한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21세기 말이면 빙하의 80%가량이 사라질

지도 모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번 겨울 한강이 얼지 않았고, 몇십 년 만에 가장 포근한 날씨였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는 지구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태어난 것이 교토 협약 또는 교토 의정서라는 것이다. 주 내용은 지구 온난화 원인물질인 여러 가스 중에서도 심각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선진 38개국들은 2012년 까지 5.2% 줄이기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다시 각국마다 줄여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하는데 예컨대 EU회원국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여야 하고 다행히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면제되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이산화탄소배출권이고 이러한 탄소배출권을 놓고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중국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각국에 탄소를 배출할 양을 정해주고 탄소 배출량을 많이 받은 나라는 할당량이 적은 나라에 잉여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

다. 상당수 기업(또는 국가)은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시설투자 등을 하기보다는 중국·중남미 등 협약 적용을 받지 않거나 배출량이 적은 개발도상국의 배출권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중국은 다국적 컨소시엄을 맺고 탄화수소 배출권 10억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다는데 조건은 중국 기업이 2012년까지 1억 2천만t 분량의 해당국가 프레온 HFC-23 성분을 소각시키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중국은 작년(1월~9월)에 탄소배출권으로 129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감축 의무가 부여 될 것에 대비 몇몇 기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 이후 감축의무가 부여될 것이 예상되므로 미리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권 시장 개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권은 무형자산이므로 세 번은 없지만 이산화탄소 자체는 HS 2811호에 분류된다.

## 통·관·뉴·스

### ▶ 각종 관세율표를 통합한 통합관세율표 제정 추진

금년중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관세율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합한 통합관세율표의 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상표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는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관보류제도가 강화된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형벌제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재경부는 월간 관세와무역 2월호에 기고한

「2007년도 관세정책방향」(장근호 관세국장)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금년도 관세정책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관세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 통합관세율표 제정 추진

현행 관세율표가 기본관세율, 협정관세율, 할당·조정관세율 등의 탄력관세율에다가 각 국별 FTA세율까지 더해져 민원인들이 실무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음에 따라 금년 중에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이들 관세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일의 통합관세율표를 제정, 고시할 계획이다.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강화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제도를 강화하여 우선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상표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상표권과 같이 저작권도 세관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통보를 하여 저작권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 관세형벌제도 등 개선

현행 관세형벌을 정비하여 관세징수목적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미한 질서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이율러 위반행위와 쳐벌간의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반덤핑관세제도 개선

반덤핑조사 및 부과절차, 반덤핑관세율 결정 등 일부 불명확한 관세법령을 보완하여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WTO 반덤핑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 피해방지효과와 소비자후생 감소비용 등을 보다 신중하게 비교·검토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대외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관세율 운용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도에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증가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용할 계획이다.

조정관세의 경우는 통상마찰 완화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존의 축소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 ▶ 아시아 철도 사업, 최근 들어 본격화돼

앞으로 아시아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시아 내륙 철도망 구축 논의가 이뤄지는 등 아시아 철도망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5년까지 세계 컨테이너 교역량이 현재의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유럽간 내륙 철도망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UN ESCAP 교통장관회의에서 아시아 국가간 철도망 구축 계획(TAR) 수립 및 이행에

관한 협정이 채택됐다.

TAR협정은 UN핵심사업의 하나로 아시아 대륙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 및 남북횡단철도(TKR)을 연결하는 총 8만1,000km에 달하는 구체철도노선사업으로 현재 'TAR' 4개 노선의 개발을 담당할 위킹 그룹이 출범해 계획 착수 및 이행에 따른 재정확보 논의를 우선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체결 당사국들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국가간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철도운임 및 기타 제반 여건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물류비용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KMI는 'TAR' 노선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경우, 기존의 해운 중심의 아시아~유럽간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대륙간 경제 및 물류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2006년 무역규모 6,349억불로 6000억불 시대 진입

2006년 수출입동향 분석 결과, 작년 무역규모는 수출 3,255억불, 수입 3,094억불로 6,349억불을 달성해 무역거래 6000억불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15일 「2006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을 발표, 전년보다 무역수지가 71억 달러가 감소한 16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는 고유가 및 환율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은 전년대비 14.4%가 증가하고, 수입은 원료수입 급증으로 18.4%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수출 동향을 분석하면, 석유제품이 32.8%의 높은 증가세를 주도한 데 힘입어 원료 및 연료(수출비중 7.75)가 34.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주력 수출품목군인 중화학공업품(수출비중 83.1%)은 기계류와 정밀기기가 33.3%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LNG·유조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비중 확대 등에 힘입은 선박이 24.7%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4.4%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경공업품(수출비중 8.3%)과 식료 및 직접 소비재(수출비중 1.0%)는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각각 2.0%와 -2.0%의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제권역별로는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로의 수출호조로 對개도국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선진국의 경우, 철강·금속제품(101.3%) 및 선박(25.2%)이 증가세를 주도한 일본은 10%이상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개도국보다 10%이상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홍콩이 20%이상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05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12.2%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6년 수입 동향을 분석하면, 용도별로는 원자재가 고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3.0%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그 뒤를 이어 소비재(18.7%) 및 자본재(11.4%)가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원유가 31.1%, 광물 39.3% 및 비철금속 43.4% 등이 30% 이상 크게 증가했

고, 국가별로는 원유 수입증가로 중동 및 칠레가 포함된 중남미의 수입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무역수지는 '04년도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71억 달러 감소한 1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對선진국 무역수지는 미국의 흑자규모 축소 및 일본의 적자폭 확대로 적자가 많이 늘었으며, 對개도국도 중국의 흑자규모 축소 및 중동의 적자폭 확대로 흑자가 많이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對동남아의 흑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고유가에 따른 원유 수입 급증으로 對중동 적자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 우리기업들 아프리카 열병합 발전사업 첫 진출

우리기업들이 아프리카 광물자원개발 및 열병합 발전사업에 대한 첫 진출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월 12일 대우인터내셔널, 경남기업 및 현대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국내 컨소시엄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암바토비 니켈 광산내 1억 8,000만불 규모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설프로젝트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미국, 독일, 호주의 4개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수주한 것으로 작년 10월말 광진공, 대우인터내셔널, 경남기업 및 STX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과 수출입은행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에 27.5% 지분으

로 향후 5년 동안 약 11억불을 투자하게 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암바토비 니켈 광산은 매장량이 1억 2,500만톤으로 2010년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최대 6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3대 광산 중 하나로 뉴칼레도니아 SLN Mine(7.8만톤/년), 인니 Soroako(6.2만톤/년)와 더불어 세계 3대규모이다.

이번에 국내 3사가 컨소시엄을 통해 수주한 열병합발전소는 40MW급 3기(예비 1기)로 구성되며, 마다가스카르 현지 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로 올 4월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한 뒤 '09. 9월에 완공 예정이며, 이후 암바토비 니켈 제련 및 정련 공장에 80MW의 설비로 전력 및 스텁을 공급하게 된다.

향후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황산·황산암모늄·석회석 등을 제조, 공급할 2억8천만불 규모의 6개 공장 건설을 3월경 입찰 할 계획으로 국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플랜트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지난해 서비스 무역수지 187억6천만 달러 적자

지난해 힘들게 수출해서 번 돈 100원중 62원을 해외여행 및 유학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13일 잠정 집계한 "2006년 서비스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보다 14.9% 늘어난 518.7억불, 수입은 20.4%늘어난 706.4억불로, 이로 인한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7.4% 증가한 187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⑤